

業界소식

모터 코어 자동설계용 SW 개발

□ (株)金星社 □

金星社는 모터 코어 자동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모터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코어 제품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이를 이용, 금형조립도를 설계하고 각종 부품류의 형상구성, 치수, 정밀도 등을 하나의 완성된 도면으로 자동 출력시켜주는 시스템이다.

또 소요 부품의 수치제어 가공 데이터 출력 모듈과 접속시켜 CAD·CAM 공정의 일관화를 가능토록 해 준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설계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치수 오기에 의한 설계상의 실수를 방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SCADA 공급 계약 체결

□ 金星産電(株) □

金星産電은 최근 韓國電力 대구전력관리처와 전력집중제어시스템(SCADA)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의 공급으로 대구지역 34개 변전소와 각 공단 및 일반수용가의 전력공급 계층 상태가 집중적으로 감시·관리됨으로써 전력공급 중단 등의 사고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 양질의 전력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韓電은 지난 80년초부터 전력설비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전력관리처에 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미 서울 전력·남서울 전력·부산·대전·광주 등 5개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경비절감, 전력공급의 산화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同社는 자체 개발한 중소형급 시스템을 철강·화학·제철 등 각종 산업용 유틸리티 및 공정제어시스템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콤팩트 型 음성다중모듈 개발

□ 金星알프스電子(株) □

金星알프스電子는 TV와 VCR에 사용되는 콤팩트 型 음성다중모듈을 개발했다.

美洲地域의 수출용 TV와 VCR에 사용되는 이 음성다중모듈은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同社의 자체 개발로 소형 패키지化는 물론 세트 제품의 경박단소화에 크게 기여, 연간 30억원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同社는 광주 하남공단내 월 5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올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同社는 앞으로도 음성다중모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미국방식의 모듈에 이어 국내 음성다중방식의 모듈도 개발중에 있다.

中國 福州에 주물공장 건설키로

□ 大宇電子(株) □

大宇電子는 對中國 합작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내에 전자제품용 소재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同社는 올해중 현지업체와 합작, 福州에 3번째로 연간 주물제품 1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同社는 지난해 8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福州의 냉장고 공장, 지난해 12월 착공한 冷媒압축기 공장에 이어 이들 공장에 납품될 주물공장 등 3개 공장을 통해 일괄 생산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PC 輸出 50만대 돌파

□ 大宇通信(株) □

大宇通信이 국내 개인용 컴퓨터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PC 수출 5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84년 美 리딩에지社와 IBM 호환 PC 수출 계약을 맺어 '85년 6월부터 XT. 기종인 모델 D를 OEM 수출한 同社는 1년만인 '86년 10만대 수출, '87년에는 30만대 수출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3년만에 모두 50만대 수출실적을 거둔 것이다.

특히 지난 '85년 첫 수출한 모델 D는 성능 품질 등을 미국 컴퓨터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아 美 컨슈머리포트誌로부터 IBM 호환기종 가운데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美國시장의 7%를 차지했다.

이를 계기로 외국 컴퓨터 업체들이 국산 PC의 수입에 적극 나섬에 따라 국내업체들이 PC를 본격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0KW AM송신기 개발

□ 東洋精密工業(株) □

東洋精密工業은 캐나다의 나우텔社와 기술협력으로 첨단방송 송출장비인 10KW급 AM송신기를 개발했다.

이 송신기는 기존 튜브 식과는 달리 트랜지스터 식이어서 고장이 적을 뿐아니라 송신핵심부분인 익사이터 시스템이 2개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시스템이 정상 운용해 방송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 송신기는 장비의 이상유무와 방송 송출의 조정을 비롯한 원격제어기능을 갖추고 있어 송신소의 무인화는 물론 낙뢰, 이상 고출력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

光 케이블 첫 輸出

□ 三星電子(株) □

첨단의 통신설비인 光 케이블이 우리나라의 고유 상표로 해외에 첫 수출됐다.

三星電子는 싱가포르의 텔레콤社에 光 케이블 100km분을 수출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선적을 완료했다.

同社의 광케이블 수출은 세계적 광통신 설비업체인 일본의 미쓰비시, 미국의 AT&T, 네덜란드의 펄립스, 이탈리아의 피렐리 등과의 공개입찰을 통해 만 것이다.

특히 수입조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에의 이번 光 케이블 수출로 同社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앞으로의 지속적인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등 인접한 동남아국가에의 수출과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과잉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광케이블 업체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코넥터 생산능력 倍加

□ (株)然湖電子 □

然湖電子는 코넥터의 수요증가에 대비, 생산시설을 대폭 증설한다.

가전용 코넥터 전문제조업체인 同社는 올 상반기 중 5억원 상당을 투입, 코넥터의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2배정도 늘린 월산 8,000만편으로 증설키로 했다.

지난 '83년 설립된 同社는 증설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로컬 수출 위주에서 이탈리아·미국지역 등으로의 직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同社는 이를 위해 생산설비 자동화와 함께 금형실 보강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Wang Freestyle System

□ 왕컴퓨터코리아(株) □

왕컴퓨터코리아(주)는 최근 "Freestyle"이라는

PC 기반의 사무자동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Freestyle은 Wang의 PC 200시리즈뿐 아니라 산업표준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으로 전자펜(Electronic Pen), 전자판(Electronic Tablet), 전화기 세트(Computer Phone)를 이용하여 쓰거나 말을 함으로써 컴퓨터 스크린에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타 시스템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Freestyle은 컴퓨터 사용을 꺼리는 경영층의 사용자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컴퓨터 명령어를 새로이 익히거나 키보드로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혁신적인 형태의 시스템이다.

전자펜으로 전자판을 터치하면 PC 스크린이 같은 크기의 전자종이로 변하여 그 위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사인이나 글자를 쓸 수 있고 전화기 세트를 이용하면 그 문서에 대한 코멘트를 음성으로 합성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 사무실의 책상위와 같이 사무기기가 놓여 있는 데스크의 모형이 나타나는 전자책상에서는 단지 전자판위에 펜을 움직여 스크린에 나타난 모형을 지정함으로써 컴퓨터에 서류의 묶음, 파일, 발송, 실제 크기로의 확대 등의 명령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우편함에 있는 메시지를 읽고자 할때는 우편함 모형이 그려져 있는 곳에 볼력을 놓고 전자펜으로 전자판을 터치하면 우편함이 개봉된다. 우편물을 읽으면서 처리방안에 대한 코멘트를 전자펜으로 덧붙이고, 전화기를 들고 지시사항을 말하고 처리 담당자에게 보내면 담당자가 메시지를 받았을때 화면과 동시에 스피커를 통하여 지시사항이 전달된다.

Freestyle 문서는 VS 시스템의 Wang Office 전자우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팩시밀리를 통해서 타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Freestyle의 기본장비는 Freestyle PC 소프트웨어와 전자판, 전자펜이다.

옵션으로는 음성처리 모듈,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등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VS Office를 쓸때는 Freestyle-VS용 데이터 링크가 필요하고 팩시밀리를 사용할 때는 G-III 호환 팩시밀리

보드가 필요하다. Freestyle은 Wang PC 200/300 시리즈와 IBM AT 호환 기종에서 고해상도 또는 표준해상도 Hercules-graphics 호환 모니터, 하드 디스크드라이브, 512KB 또는 640KB RAM이 필요하다.

스리랑카에 合作工場 설립

□ 正豊物産(株) □

正豊物産이 국내 전자업계로는 처음으로 스리랑카에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同社は 스리랑카의 아반스社와 51대 49의 합작비율로 正豊아바스社를 설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합작사는 70만 달러를 투입,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볼륨 등 연간 1,000만개(볼륨 500만개, 스위치 400만개) 규모의 전자부품공장을 건설, 올 2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권을 갖는 同社は 볼륨·스위치 조립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제공은 물론 연간 140만 달러 상당의 원부자재를 수출하며 아바스社는 공장 부지 건물제공과 함께 500여명의 종업원을 현지에서 고용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 합작사에서 생산된 볼륨·스위치는 대부분 홍콩·싱가폴 등 동남아지역에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며 사업초년도인 올해 매출목표를 200만 달러로 잡고 있다.

住所 및 變更事項 案内

□ (株) 엔지니어링東海

- 변경후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2-1
(세원빌딩 4층)

□ 仁熙産業(株)

- 변경후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6
- 변경후 전화번호: 866-1184

□ 삼진코퍼레이션

- 변경후 상호: 삼진코퍼레이션
- 변경전 상호: (주) 동안전자

- 京一엔터프라이즈
 - 변경후 주소: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323
 - 변경후 전화번호: 032)664-8071/3
- 東洋電源工業(株)
 - 변경후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9-4
(백랑빌딩 4층)
 - 변경후 전화번호: 568-4753/4
- 斗日産業(株)
 - 변경후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3
(노바빌딩)
- (株)디지콤
 - 변경후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10
(올림피아센터빌딩)
 - 변경후 전화번호: 554-3664
- 漢周電子(株)
 - 변경후 상호: 漢周電子(株)
 - 변경전 상호: 瑞麟電子(株)
- 世光興業(株)
 - 변경후 주소: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240-1
 - 변경후 전화번호: 032)434-8672
- (株)데이타콤
 - 변경후 주소: 서울 성동구 군자동 334-1
 - 변경후 전화번호: 242-2191
- (株)大韓赤外線
 - 변경후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2-1
(해원빌딩)
 - 변경후 전화번호: 549-1562
- 全韓實業(株)
 - 변경후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8-7
(대지빌딩 2층)
 - 변경후 전화번호: 587-1837, 588-9908/9
- 朝亜電子(株)
 - 변경후 상호: 朝亜電子(株)
 - 변경전 상호: 朝亜電子工業社
 - 변경후 주소: 대구시 서구 평리동 1334-3
- 東洋나이론(株)曉星컴퓨터事業部
 - 변경후 주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
(청담빌딩)
 - 변경후 전화번호: 545-4151
- 韓國스카다시스템(株)
 - 변경후 주소: 서울 서초구 도곡동 521-2
(오룡빌딩)
 - 변경후 전화번호: 576-0322/6
- 華仁電子
 - 변경후 주소: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474-10
- 한국메트로닉스(주)
 - 변경후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27
(송원빌딩 401호)
 - 변경후 전화번호: 555-7352/3
- 韓新電子(株)
 - 변경후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9-45
(서일빌딩 302호)
- (株)多佑技術
 - 변경후 대표자: 金 翊 來
 - 변경전 대표자: 安 京 洙
- 三星電管(株)
 - 변경후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3
(대경빌딩)

